

## 김정환 시 번역의 도전과 성취: 『세이머스 히니 전집』을 중심으로

정 하 연  
(이화여대)

### 1. 서론: 김정환과 시 번역

김정환은 1980년 등단한 이래 시인, 극작가, 소설가, 전방위 저술가이자 번역가로 방대한 업적을 쌓아 왔다. “언어의 수행성을 극대화시키며 새로운 민중시의 형식을 보여준”(김나현 2022: 365-366) 실험적 작품세계로 시대를 이끈 문인으로 80년대 문단에 중요 업적을 남겼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고전과 시 번역에서 큰 획을 긋고 있다. 번역가로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여전히 출간 진행 중인 40권 분량의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전집이며, 2000년부터는 시 번역에 집중하여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en Poe)에서 필립 라킨(Philip Larkin)에 이르는 여러 주요 서양 시인뿐 아니라 비영어권 시인들의 작품까지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독보적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행보에 비하여 평단 및 학계에서 그의 번역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는 외국문학의 국문 번역, 특히 시 번역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평단에서 번역 평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에 기인한다고 보기에, 개별 번역가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시인 김정환이 아닌 번역가로서 김정환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최근 발표된 김나현의 논문을 들 수 있으나, 여기에서도 김정환 등단 초기의 번역 작업을 당시 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참조점”(김나현 2022: 341-342)으로 고찰할 뿐, 번역 텍스트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외에는 영미시 학자 장경렬이 짙막한 서평에서 김정환이 번역한 셰익스피어 전집을 소개한 바 있는데 제목 「즐거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며」부터 김정환 번역을 다루는 평단과 학계의 관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작은 첫발을 내딛는 자세로, 김정환이 2000년 번역 출간한 20세기 가장 중요한 영미 시인 세이머스 히니(Seamus Heaney)의 전집을 실증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번역 양상 그리고 번역관을 기술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 2. 배경: 시 번역 비평의 현황과 과제

한국 근대문학의 태동기 이래 한 세기가 넘도록 방대한 분량의 서양시, 특히 영미시가 번역되어 널리 읽혀왔을 뿐 아니라 한국 현대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어왔지만, 번역시에 대한 평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영미시의 국문번역 방법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매우 미미하며, 개별 번역가의 업적과 성취에 대한 연구 역시 드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변화가 일어 2020년대에 들어서 시 번역 연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 중 신진 학자들에 의한 한국 현대시의 영어번역 연구(박영란 2022; 심선향 2021; 신상범 2020; 신상범 2021; 이재성 2022; 한미애 2020; 한미애, 조의연 2020)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문학의 해외 출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 주제 또한 시의 미학적 요소와 시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앞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통해 한-영 번역의 방법론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시의 영어 번역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훨씬 방대한 분량이 번역 출판된 영미시의 국문 번역에 대한 연구는 최근 근대문학 초기 그리고 현대문학 발전기 주요 문인들의 번역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근대 문인들의 번

역 연구를 통하여 한국 근현대문학이 형성된 과정을 짚는 문학사적 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현대 이후 번역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전문 번역가 그리고 출판되고 있는 번역시는 평단 및 학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정환의 번역시와 방법론을 살피기 위한 주요 토대가 되어준 연구들을 아래와 같이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 2.1 근현대 문인의 영미시 번역 연구

김옥동은 저서 『근대의 세 번역가』(2010)에서 1900년대 최초로 서양시를 국문으로 번역한 최남선의 성취를 기술하며 바이런(Lord Byron)과 테니슨(Alfred Tennyson) 등의 정형시를 한국의 전통적인 7-5조 율격으로 번역하여 원시의 운문적 성격을 도착어로 전환하는 번역 전략을 취했음을 관찰하였고, 이어 김억이 중역이 아닌 프랑스어시와 영어시 원문을 직접 번역하여 본격적인 시 번역 시대를 열었으며, 직역, 의역, 오역 등의 용어를 비롯하여 직역과 별개 의미의 축자역 개념 등을 사용하여 본인의 번역관을 이론화한 성취를 정리하고 있다.

이들을 이은 여러 문인, 특히 시인들이 번역가로 활동하며 한국의 현대문학의 지평을 넓혀온 성취에 대한 연구들이 2000년대에 들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박용철, 정지용, 김영랑 등의 시문학과 시인들이 수행한 번역의 문학사적 기여에 대한 연구에서 영미 정형시의 형식과 운율을 한국어로 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분석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박용철의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번역에서 보이는 톤, 무드를 적극적으로 살린 운문화 전략(김효중 2006), 정지용의 월트 휘트먼(Walt Whitman) 번역에 담긴 시적 의도와 의지(정현 2018), 또 정지용의 타고르(Rabindranath Tagore)와 블레이크 번역에서 통어적 구조를 자유롭게 변주한 형식미 반영(전세진 2020), 김영랑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서정시 번역에서 한국어 문법 및 통어적 구조에 따른 행갈이 조정과 의미 분절을 통해 음악성을 살린 “창작적 의역”(한세정 2020) 등은 앞으로 영미시 번역 연구 발전에 좋은 기반이 될 자료이다.

한국전쟁 이후 시 번역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문인에 대한 연구로는 피

천득의 셰익스피어 소네트 번역에서 보이는 도착어, 즉 한국어의 아름다움 추구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번역관이 정리된 바 있고(정정호 2010), 미국의 여러 모더니스트 시인을 번역한 김수영에 대한 연구로,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의 시 ‘The Drinker’ 번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번역자의 창조적 ‘다시/쓰기’ 및 시인 자신의 시쓰기에 반영한 과정의 정리(Ryoo 2016), 그리고 번역작업이 김수영의 세계문학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를 살핀 연구(박수연 2018) 등을 꼽을 수 있다.

## 2.2 영미시 형식 번역 연구

영미시 번역에 대한 연구 중 근대 문인 번역가가 아닌 영미시 형식의 번역 및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그 숫자가 지극히 적으며, 번역시 전체에 대한 조망보다는 시의 단편적 요소 혹은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도 양적으로 미미할 뿐 아니라 현대 영미시 전통을 아우르고 있지 않아 그 범주가 제한적이기도 하다.

최근 수행된 두 편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번역본 다섯 편을 어휘와 운율적 요소 중심으로 분석하여 등가성과 충실성을 이론적 축으로 정리하였고(김혜경, 윤소영 2016), 각기 다른 시대에 출판된 셸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 운문동화 번역본 세 편을 언어유희와 리듬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성승은, 우동찬, 박건영 2022). 두 연구 모두 드물게 구체적인 번역 분석이 중요한 성취인 반면, 아직 영미시 번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서 아동문학으로 출판된 텍스트를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며, 시의 구조나 기본 형식을 토대로 한 분석이라기보다 지엽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비평보다는 번역이론 적용을 위해 문학 텍스트를 코퍼스로 사용하고 있는 접근이라고 보인다.

번역시 비평의 부재 속에서 두 편의 글이 시 번역에 대한 평론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김상무 번역 『에이즈 서정시 전집』에 대한 서평에서는 읽힘새에 초점을 맞춰 역자의 음악적 효과 중심의 정형시 번역 방법론을 확인해주었고(홍은택 2014), 에드거 앨런 포 번역시 검토를 통하여 시 번역 비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 고찰을 포의 상징주의적 특징과 미학적 효과 중심으로 풀어낸 바 있다(구태헌 2009).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직접 연결되는 주제 및 이론적 토대를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의 번역 분석의 기반을 마련해준 논문으로 「시가 만드는 형상: 디킨슨 시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정하연 2020)을 들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의 정형시 한 편을 197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섯 명의 번역자에 의해 한국어로 옮겨진 양상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운문을 산문화하여 번역하는 경향이 뚜렷함이 확인되었다. 원시의 행갈이 및 연의 구성, 이미지 전개 순서 등이 번역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음과 동시에 원시의 은유와 표현을 풀어쓰는 패러프레이즈가 전반적으로 관찰되어, 형식미보다는 산문적 의미에 치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반면, 일부이지만 적극적인 운문 번역이 시도된 경우가 확인되어, 이에 버튼 라펠(Burton Raffel)의 비교 율격(comparative prosody) 그리고 제임스 W. 언더힐(James W. Underhill)의 운문화(versification) 개념을 도입하여 영미시의 시적 효과를 한국어 율격과 구조로 살려내는 방법론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비교 율격의 방법론이란 출발어의 시적 장치들을 도착어로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지만 “근접하기(approximation)”(Raffel 1988: 83)를 통하여 유사한 대응 장치로 재현하는 전략이며, 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 언더힐의 비교 운문화(comparative versification)로, “유사한 장치로의 대체 혹은 변주를 통해 원시의 효과를 보완함”(Underhill 2016: 280)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문에서 확인된 영미시 번역에서의 운문화의 가능성이 김정환의 번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번역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상세하게 살피고자 한다.

### 3. 분석 대상 텍스트 및 기준

#### 3.1 『세이머스 히니 시전집』

본 연구에서 김정환의 시 번역을 살피기 위하여 선택한 텍스트는 2000년

문학동네에서 세계시인전집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간한 『셰이머스 히니 시전집』으로, 열두 권의 시집 분량 총 사백여 편의 시를 담아낸 역작이다. 세계시인전집은 김정환이 기획과 번역을 도맡아 2000년부터 펴내고 있는 시리즈로, “위대한 시인들이 근대라는 시대적 환경을 시적 감수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는지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집”(정민정 2013)이라는 취지 하에 필립 라킨,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 윌리스 스티븐스(Wallace Stevens),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등 영미권의 시인뿐 아니라 폴란드 시인 즈비그니에프 헤르베르트(Zbigniew Herbert), 러시아의 안나 아흐마토프(Anna Akhmatova), 그리스의 콘스탄티노스 페트루 카바피(Konstantinos Petrou Kavafis)와 조지 세페리스(George Seferis) 등 비영어권 시인들의 전집도 김정환이 직접 중역이 아닌 원어 시 번역으로 펴내고 있다. 이제까지 출간된 해당 시리즈 네 권 중 셰이머스 히니의 전집을 선택한 이유는 현대 영미시 대가로서 히니의 중요성뿐 아니라, 1995년 히니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맞춰 『어둠으로 통하는 문』, 『북쪽』, 『그 섬』 등 세 권의 개별 시집이 김정환 번역으로 출간된 후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형태로 전집에 포함되어 나왔기에 번역에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라는 점, 또한 다른 번역자들의 국문본이 일부 존재하여 번역 방법론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북아일랜드 출신 셰이머스 히니(1939~2013)는 20세기 영미권 작가 중 가장 널리 인정받고 또 널리 읽힌 시인으로 꼽힌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히니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는 워낙 깊고 넓게 진행되어왔으며, 특히 주제론적인 연구 그리고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북아일랜드 시민의 “집단적 고통을 상상의 틀을 통하여 대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항적 자리매김으로 귀결되기 쉬운 감정적 태도에 지성적 고찰을 덧입혀온”(Vendler 1998: 2) 성취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적 구조 및 형식의 번역 분석을 위하여, 히니 시 연구를 주제론적 측면보다는 구조적, 형식적 관점에서 진행해온 현대 영미시 연구의 대가 헬렌 벤들러(Helen Vendler)의 텍스트 분석을 주로 참고하고자 한다. 벤들러가 평가하는 히니의 시적 역량은 독자를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데에 주제와 상징만이 아닌 “단어, 통사, 구조”(Vendler 1998: 3)를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즉 언어와 통사를 유연하고 풍성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시 형식의 내면적 구조를 다루는 치밀하고 섬세한 감각으로 시의 미학

적인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번역에서 치밀하고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 층위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2 분석 기준

“시는 행 하나, 단어 하나라도 잘못 번역되면 시심(詩心)이 왜곡되는 만큼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정민정 2014).

김정환은 세계시인전집을 펴내며 이렇게 자신의 확고한 번역관을 피력한 바 있다. 여러 글과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의 번역 전략을 보면, “행갈이를 원문과 똑같이”(장경렬 2013: 239) 맞추며, “시 번역에는 꾸밈이 있어서는 안 되”며(김슬기 2014), “어려운 말을 쉽게 고치는 건 ‘틀린 번역’이다”(김슬기 2014)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문법의 예술”(최재봉 2013)이라고 설명하며 시를 번역할 때 그 시의 문법을 찾는 것이 자신의 접근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번역이 직역이라는 반응에 대하여 “그 시를 모국어로 쓰는 이들이 어떻게 느낄까 완벽하게 구현하려 노력”(김슬기 2014)한다고 적극 변호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김정환의 번역관은 라펠의 “번역된 시가 시로 재탄생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Raffel 1988: 166)는 관점과 유사하며, 가급적 원문의 외형적인 특성을 모두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즉 앞서 디킨슨 연구에서 관찰된 운문의 패러프레이즈 경향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번역관이며, 운문을 운문으로 번역하는 운문화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번역관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역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떤지를 살피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앞선 디킨슨 번역 연구에서는 엄격한 울격을 기반으로 한 정형시를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룰 히니의 자유시들은 벤들리가 설명했듯이 어휘와 통사 그리고 구조를 주요 시적 장치로 사용하고 있기에 김정환의 비교 운문화 전략을 살피는 데 있어서 운율보다는 전체적인 행갈이(line break)와 연의 통사적 구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 자유시의 다양한 구조와 형식을 통어적 구조의 차이가 매우 큰 영어와 한국어 사이

에서 유지하기 위해 역자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기술할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번역관을 실천하기 위해 취한 선택과 방법들이 전체적인 시적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 4. 번역 텍스트 분석

텍스트 분석은 우선 『세이머스 히니 시전집』에 수록된 한 편의 시를 김정환을 포함한 세 명의 역자의 번역본을 상호 비교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어 전집에서 세 편의 시를 원문과 함께 검토하여 김정환의 번역 방법론의 실천 양상을 기술, 정리한다. 네 편 시의 선정 기준은 40년에 걸쳐 발전, 변화해온 히니의 시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시기의 주요작을 중심으로 골랐으며, 뚜렷하게 차이 나는 구조와 형식을 지닌, 또한 각각 구조적 효과가 선명한 시를 선정하여 다양한 번역 양상을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 4.1 ‘Death of a Naturalist’ 세 개의 번역본 발췌 비교

1966년 발표한 세이머스 히니 첫 시집의 표제작 ‘Death of a Naturalist’는 1995년 히니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동시에 국문으로 번역, 출간된 두 권의 시집에 포함되어, 김정환 역 『세이머스 히니 시전집』 수록본과 함께 총 세 개의 개별 번역본이 출간되어 있어 김정환 번역을 다른 번역자들의 접근법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각각 21행, 12행인 2개의 긴 연으로 구성된 이 시의 도입부 번역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Death of a Naturalist	TT1 어느 자연주의자의 죽음
All year the flax-dam festered in the heart	한 해가 지나갈 때까지 아마는 도심지의 한복판에서
Of the townland; green and heavy-headed	끓어가고 있었다. 커다란 잔디판에 짓눌린 채



Flax had rotted there, weighted  
down by huge sods.  
Daily it sweltered in the  
punishing sun.  
Bubbles gargled delicately,  
bluebottles  
Wove a strong gauze of sound  
around the smell.

둔중한 초록색 아마는 서서히 썩  
어들과 있었다. 날마다 아마는  
죄를 벌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숨이 막혔  
다.  
거품이 가볍게 일어나고  
국화들이 아마 냄새에다  
음향의 파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TT2

한 자연주의자의 죽음

일년 내내 아마(亞麻)독은 마을  
한복판에서  
끓아갔다. 커다란 뗏장더미에 짓  
눌려  
초록빛 둔중한 아마는 거기서 썩  
어갔다.  
날마다 아마는 작열하는 태양 아  
래 지쳐갔다.  
미묘하게 거품이 일고, 수레국화  
향기를 짙은 소리그물이 감쌌다.

TT3

자연애호가 한 명 죽다

연중무휴로 아마·독이 끓었다 동네  
한복판에서; 초록색에 머리 무거운  
아마가 썩어버렸던 것, 엄청난 뗏  
장에 짓눌려.  
매일 그것이 형벌의 일관으로 땀  
투성이였다.  
거품들이 섬약하게 양치질했고,  
수레국화  
그 냄새 주변에 소리의 질긴 외울  
배 안개를 잤다.

TT1은 1995년 시학사에서 출간한 『어느 자연주의자의 죽음』(최유경 역)에 실린 번역본으로, 원문의 행갈이가 완전히 재배열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이뿐 아니라 각 행의 길이와 구성도 원문에서 크게 멀어진 형태여서, 결과적으로 번역시 전문은 원시의 2연, 총 33행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연 구분 없는 46행이 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행의 재배열이 이루어졌나를 살펴보면 원시를 행 구분이 아닌 문장 단위로 끊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어순대로 번역한 뒤, 행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행갈이가 시적 긴장감이 아닌 길이에 맞춰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원시의 1-2행, 2-3행 그리고 5-6행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구(句) 걸치기(enjambment)의 효과가 지워지고, 네 개의 문장이 평이한 어순으로, 즉 산문과 같은 전개로 이어지며, 번역시의 10행에서는 원시 6행의 은유적 구

성을 “음향의 파장을 강하게 흔들었다”라고 좀 더 익숙하게 변형하여 풀어낸 것을 볼 수 있다.

TT2 역시 1995년 출간본으로, 한겨레에서 펴낸 『한 자연주의자의 죽음』(권국성 역)에 실린 번역본이다. TT1과 비교해볼 때 행갈이 및 각 행의 구성이 좀 더 원시에 가까우며, 5-6행의 경우 “bluebottles/수레국화”로 동일하게 맞물려 원시의 구 걸치기를 의식적으로 반영한 것이 확인된다. 반면, 1-2-3행의 이음새를 보면 TT1과 비슷한 전략으로 문장 단위로 번역을 우선 진행한 뒤 한국어로 재배치된 어순에 따라 행갈이를 재배열하여 원시의 구 걸치기의 긴장감을 잃은 것을 볼 수 있다.

TT3은 『세이머스 히니 시전집』에 실린 김정환 번역본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행의 하이픈과 2행의 세미콜론을 국문에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아마-독,” “한복판에서;”). 국문 텍스트, 특히 산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문장 기호를 그대로 쓰는 과격이지만, 황지우가 80년대부터 여러 편의 시에서 콜론과 세미콜론을 사용한 전례가 있기에(황지우 1985: 82, 황지우 1999: 13, 15, 18, 20, 38) 이를 번역에 적용한 실험적인 운문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의 구성을 살펴보면 행갈이를 원시 그대로 유지했을 뿐 아니라 각 행 안에서 전개 순서 및 문장 구성 요소들의 위치를 원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시의 구 걸치기도 그대로 반영되어 1-2행 사이 행갈이가 “동네/한복판에서;”로, 2-3행 사이는 “무거운/아마가”로 5-6행 사이는 “수레국화/그 냘새”로 시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구 걸치기는 조사나 어미 등의 표지(marker)가 없는 영어 자유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로, 문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갈이가 이루어져 행 말미에 독자를 멈추게 하는 동시에 통어적 흐름은 독자를 다음 행으로 이끌어 “주저와 기대감 사이의 긴장”(Hirsch 1999: 279)을 자아낸다. 위의 세 편의 번역에서 구 걸치기의 반영 여부가 주는 효과의 차이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역본의 첫 여섯 행만을 비교해봤음에도 김정환 번역에서 다른 두 편의 번역과의 확연한 전략과 양상의 차이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 자신이 명시했듯이 “행 하나, 단어 하나”도 바꾸지 않는 방법으로 원문의 운문적 특성과 효과를 번역에 반영하여 운문화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 4.2 김정환의 번역 세 편 전문 검토

이어지는 세 편의 번역본 검토에서는 앞서 다른 번역본과의 비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김정환의 번역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또 어떠한 한계를 보이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 4.2.1 ‘The Grauballe Man,’ <그라우발레인>

The Grauballe Man	①that has tanned and toughened.
As if he had been poured in tar, he lies on a pillow of turf and seems to weep	The cured wound opens inwards to a dark elderberry place.
the black river of himself. The grain of his wrists ②is like bog oak, the ball of his heel	Who will say ‘corpse’ to his vivid cast? Who will say ‘body’ to his opaque repose?
like a basalt egg. His instep has shrunk cold as a swan’s foot or a wet swamp root.	And his rusted hair, a mat unlikely as a foetus’s. I first saw his twisted face
His hips are the ridge ②and purse of a mussel, his spine an eel arrested under a glisten of mud.	in a photograph, a head and shoulder out of the peat, bruised like a forceps baby,
The head lifts, the chin is a visor raised above the vent of his slashed throat	but now he lies perfected in my memory, down to the red horn of his nails, hung in the scales

with beauty and atrocity:  
with the Dying Gaul  
too strictly ③compassed

③on his shield,  
with the actual weight  
①of each hooded victim,  
slashed and dumped.

그라우발레인\*

쏟아부어진 데가  
타르 속인 것처럼, 그는 누워있다  
뗏장 배개 위에  
그리고 겹보기에 운다

자신의 검은 강을.  
그의 손목 살결  
②은 소택지 떡갈나무 같다,  
뒤꿈치 공 모양

현무암 계란 같다.  
그의 발등 쭈그러들었다  
백조 발처럼 차갑게  
혹은 축축한 눈 뿌리처럼.

그의 엉덩이는 산마루  
②이자 다문 입, 말조개의,  
그의 등뼈는 뱀장어,  
진흙의 반짝임 속에 채포된.

머리 들리고,  
아래턱은 투구 면갑,  
들어올려진 그 아래 통풍구,  
깊이 베인 그 목,

그을려지고 단단해진 ①그것의.  
치유된 상처  
열린다 안으로 어두운  
딱총나무 열매 장소로.

누가 '시체'라 할 것인가  
그의 생생한 구조물에 대고?  
누가 '육체'라 할 것인가

그의 우중충한 휴식에 대로?

그리고 그 머리카락,  
하나의 돛자리, 태아의 그것만큼  
이나  
있을 법하지 않은.  
나는 처음 그의 뒤틀린 얼굴을 보  
았다

사진에서,  
머리와 어깨가  
토탄 밖으로 나왔었다,  
겹자 아기처럼 멍든 모습으로,

하지만 이제 그는 누워 있다  
내 기억 속에서 완전화하여,  
그의 손뚝

붉은 각질까지 생생하게,

어느 쪽으로도 결정되지 않은 채  
아름다움과 잔학을 품고:  
‘죽어가는 갈리아인’을  
너무 엄격하게 ③자기 방패에

③달성시킨 채,  
실제 무게,  
두건으로 가린 희생자들 각각의  
①그것은  
난도질당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 \* 덴마크 유틀란드 반도 그라우발레  
높에서 출토된 미라. BC290년 경.
- \* 헬레니즘기 청동 조각. 로마 시대  
대리석 모조품만 남아 있다.

히니의 1975년 시집 *North*(북쪽)에 수록된 이 작품은 늪지 출토 미라라는  
고고학적 모티브를 통하여 역사를 고찰하는 네 편의 시 중 하나로, 헬렌 벤들러  
는 이 시기 히니가 지시적(denotative)이 아닌 형용사적(adjectival) 언어, 즉 직  
유와 은유를 통하여 시적 고찰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Vendler 1998:  
52). 각 짝막한 4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13개의 연으로 전개되는 구조는 비쩍  
마른 검은색 미라의 형상을 연상케 하며, 길게 연이어지는 미라에 대한 감각적,  
상상적 묘사 끝에 도달하는 마지막 행(“slashed and dumped”)을 “형용사적 숭  
고(adjectival sublime)”의 경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결말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Vendler 1998: 52).

번역을 살펴보면 히니의 이러한 형용사 중심의 전개가 거의 모두 원시의  
구성대로, 즉 과거분사를 비롯한 형용사 및 부사 그리고 형용사구/절, 부사구/절  
이 거의 품사 전환 없이 국문으로 번역되었다. 이와 더불어 행갈이 역시 원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자세히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실행 방법  
의 문제이다. 앞의 비교 분석에서 본 것처럼 다른 번역자들은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통어적 구조 차이로 인하여 어순을 맞추기 힘들어 행의 재배열을 택하는 상황에서, 김정환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우선 가장 두드러진 방법은 술어가 끝에 위치하는 국문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포기하고 술어 뒤에 목적어, 서술구/절 등을 배치하여 원시의 행갈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위 번역시에 밑줄로 표시된 총 15개의 행에서 이러한 방법론이 확인된다. 국문의 가독성 그리고 자연스러움과 원시의 구조와 형상 사이에서 과감하게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 외에도 6, 13행에 ①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원시의 행갈이를 유지하기 위해 명사 뒤에 형용사절로 수식되는 순서 혹은 전치사 “of”로 연결되는 두 명사의 순서를 대명사 “그것(앞에 나온 명사 “목,” “무게”를 지칭)”을 추가하여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 4연에서는(②로 표시) 구 걸치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문 띄어쓰기 원칙까지 깨면서 조사 “-은”과 “-이자”를 줄바꿈하여 배치하는 파격을 시도하고 있다. 구 걸치기의 긴장감을 살리는 동시에 원문의 “is”와 “and”가 행 앞머리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을 번역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과감한 시도로 보인다. 그리고 앞의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12연의 콜론이 국문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12, 13연에 ③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시에서 유일하게 행갈이가 변형된 곳이다. 마지막 세 개의 연의 전개가 번역에서 매우 불안정하게, 또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원시 행갈이 반영 자체가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시에서 11연 첫 행 “but now he lies” 이후 이어지는 과거분사 절(“perfected in...”), 부사구(“down to...”), 분사구문(“hung in...”), 그리고 3개의 전치사 구/절(“with...”)의 구성이 앞에서 정확하게 품사 및 문장 구조에 맞춰 번역된 양상과 달리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그 모양새와 의미가 모두 불명확해졌다.

#### 4.2.2 ‘Oysters,’ <굴>

Oysters

Our shells clacked on the plates.

My tongue was a filling estuary,

My palate hung with starlight:  
As I tasted the salty Pleiades  
Orion dipped his foot into the water.

Alive and violated  
They lay on their beds of ice:  
Bivalves: the split bulb  
And philandering sigh of ocean.  
Millions of them ripped and shucked and scattered.

We had driven to that coast  
Through flowers and limestone  
And there we were, toasting friendship,  
Laying down a perfect memory  
In the cool of thatch and crockery.

Over the Alps, packed deep in hay and snow,  
The Romans hauled their oysters south to Rome:  
I saw damp panniers disgorge  
The frond-lipped, brine-stung  
Glut of privilege

And was angry that my trust could not repose  
In the clear light, like poetry or freedom  
Leaning in from sea. I ate the day  
Deliberately, that its tang  
Might quicken me all into verb, pure verb.

굴

우리의 굴 껍데기들이 딸각됐다 접시 위에서.  
①내 혀는 채우는 강어귀,  
내 미각은 별빛과 함께 걸렸다.  
내가 소금기 있는 묘성을 맛보니  
오리온이 발을 물 속에 담갔다.

① 생명 있고 범해진 채  
그들은 누웠다 얼음 침대에:  
쌍각: ① 갈라진 구근과  
① 엽색의 신음 소리, 대양의.  
수백만의 그것들, ① 비집어 열리고 껍데기 벗겨지고 흩뿌려진.

우리는 차를 몰고 갔었다 그 해변에  
꽃들과 석회암 지나  
그리고 거기 우리 있었다, 우정을 건배하며,  
완벽한 기억을  
① 이영과 오지그릇 그들에 내려놓으며.

알프스 건너, 건초와 눈으로 깊숙이 포장하여,  
로마인들은 운반했다 그들의 굴을 남쪽 로마로:  
나는 보았다 촉촉한 마소 짐바구니들이 깨워내는  
입이 잘게 갈라진, 소금을 쿡쿡 쑤셔 넣은  
특권의 공급과잉을

그리고 화가 났다 나의 기대가 기대하는 것이  
쾌청한 쪽이 아니라는 거, ② 이를테면 바다 쪽에서 기어오는  
② 시 혹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 나는 먹었다 그날  
신중하게, 혹시 그 짜릿한 맛이  
내 온몸을 동사(動詞), 순전한 동사 속으로 재촉하지 않을까 싶어서.

히니는 1979년 다섯 번째 시집 *Field Work*에 들어서 고고학적 고찰에서 인류학적 고찰로 관심을 옮겨가고, 이는 앞에서 본 형용사 중심의 시적 전개가 동사 중심의 전개로 전환하는 양상으로 구현된다(Vendler 1998: 48). ‘Oysters’는 이 시집의 첫 시로,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동사를 사용하고 또 지향하는 시이다. 총 5개의 5행련(聯)(cinquain)으로 이루어져 표면적으로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의 전개를 보면 1, 3연은 평온, 2, 4행은 죄의식의 대항으로 맞물려 5연에서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소네트와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Vendler 1995: 70).

이 시의 번역에서도 역시 콜론이 그대로 사용되고, 행갈이가 원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앞의 시에 비하여 각 행의 길이가 길고, 또 대부분의 행이 생생한 동사가 이끄는 완결된 술부로 구성되어, 번역 과정에서 원시의 행갈이 반영에 장애물이 적은 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번역에서 특이한 점은 위의 밑줄 친 부분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행 안에서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이 아닌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는 선택을 일관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사 중심의 전개가 두드러지도록 부자연스러운 어순을 선택한 것인지, 각 행의 모양새를 그대로 복제한다는 의도인지,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

반면 1, 2연에 ①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면 원시의 운율적 요소들을 김정환이 시인으로서의 솜씨를 발휘하여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그 효과를 살려낸 것을 볼 수 있다. 원시에서 사용된 모음운(assonance)과 자운(consonance)을 근접하기를 통한 비교 울격의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이는 원시의 행갈이가 유지되었기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원시 행갈이의 변형은 이번 시에서도 마지막 연에서 유일하게 관찰된다. 마지막 연 ②로 표시된 2, 3행을 보면, 통어적 구조로만 본다면 행갈이를 유지한 다른 부분들과 유사하고, 또 3행에서는 끝이 “나는 먹었다 그날”로 어색한 한국어 어순으로 원시의 행 전개를 따르고 있는데 왜 행갈이 재배열이 필요했는지 의아해진다. 원시에서 1, 2행의 “my trust could not repose”와 “like poetry or freedom”이 말미에 함께 놓여 앞서 언급한 5연의 갈등 해소로 이어지는데, 국문에서 이 두 행의 번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그 이유라고 추측된다. 이는 앞의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결말로의 전개가 불안정하고 흐릿해진 결과를 낳아, 마지막 행의 도달점(“verb, pure verb.”)이 주는 선명한 울림과 여운이 번역에서는 “재촉하지 않을가 싶어서”로 산문적인 동시에 갈등 해소와는 거리가 먼 듯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

#### 4.2.3 ‘Squarings xxiv,’ <사각형 만들기 xxiv>

xxiv

Deserted harbour stillness. Every stone  
Clarified and dormant under water,

www.kci.go.kr

The harbour wall a masonry of silence.

Fullness. Shimmer. Laden high Atlantic  
The moorings barely stirred in, very slight  
Clucking of the swell against boat boards.

Perfected vision: cockle minarets  
Consigned down there with ①green-slicked bottle glass,  
①Shell-debris and a reddened bud of sandstone.

Air and ocean known as antecedents  
Of each other. In apposition with  
Omnipresence, equilibrium, brim.

xxiv

버려진 항구의 고요. 돌멩이 각각 모두  
물 아래 깨끗해지고 잠자는,  
항구 벽은 침묵의 석공술.

충만, 희미한 반짝임, 짐 실린 높은 대서양,  
계선용 밧줄이 가까스로 뒤섞여드는, 아주 하찮은  
부품의 혀 쫓쫓 차는 소리, 배 판자에 가닿는.

완벽한 전망: 새조개 무리 침탑,  
그 아래로, ①초록 매끈한 병 유리,  
①조가비 부스리기 및 붉은 사암 봉우리와 ②함께 처한.

공기와 대양, ②서로의  
전례(前例)로 알려진 ②편재,  
평형, 넘침과 ②동격으로 ③말이지.

이 시는 1991년 시집 *Seeing Things*에 수록된 ‘Squarings’ 연시 중 24번째 작품으로, 해당 연시는 제목과 같이 정사각형(square)의 모양새를 갖고 있다. 각 시는 4개의 5보격(步格) 3행 연구(聯句)(pentameter tercet)로 구성되어 총 12행,

즉 전통적인 14행의 5보격 정형시 소네트보다 더 정사각형에 가깝게 변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Vendler 1998: 41-42). 전통 소네트는 구조적으로 이항적 대립, 즉 문-답, 문제-해결 등으로 전개되는데, 3행 연구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 형태는 히니가 포착하고자 하는 “투시적 통찰(clairvoyant perception)”을 선명하게 담아내기에 적절하다(Vendler 1998: 42). 이를 담아내기 위해 이번에 히니가 집중하는 품사는 명사이다. 온전한 문장의 형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시 전체가 명사 및 명사구/절로 이루어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이렇듯 술부가 거의 없는 통어적 구성이 김정환의 번역 전략 구현을 수월하게 해주어 행갈이를 원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앞의 두 번역시에서 본 부자연스러운 어순이 위의 밑줄 친 한 곳에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앞의 번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콜론은 사용되고 있지만, ①로 표시된 두 곳에서 보이듯이 원시의 하이픈은 번역에 반영하지 않아 전략의 변화를 보인다.

이 시에서 히니가 어휘의 질감 표현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품사는 당연히 명사로, 라틴어 계열 어휘와 앵글로색슨 계열 어휘의 구분과 배합을 통하여 화자가 관찰하고 고찰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 주고 있다(Vendler 1995: 148). 번역에서도 이러한 어휘의 배합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swell - 부푼,” “shimmer - 반짝임” 등 앵글로색슨 계열 어휘에 순수 우리말을 짝지어주고 있다. 특히 마지막 행(“Omnipresence, equilibrium, brim.”)의 세 단어의 결, 즉 라틴어 계열 신학적 어휘에 이어 라틴어 계열 과학 용어, 그리고 감정을 담아내는 앵글로색슨 어휘를 각각 살려 한문 어휘 “편재”와 “평형,” 그리고 소박한 고유어의 명사형 “넘침”으로 옮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의 효과가 절감된 결과가 보이는데, 이는 위에 ②로 표시되었듯이, 역시 이 시에서도 마지막 연에 다다라 행갈이의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마지막 행에 있어야 할 “편재”가 그 전 행으로 옮겨가고, 앞 행의 “In apposition with(동격으로)”가 시의 최종 도달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명사만으로 구성된 원시 마지막 행에 “말이지”라는 술부가 추가되어 <굴>에서와 마찬가지로 결말의 선명함과 여운이 희석된 것이 보인다.

### 4.3 번역 양상

위의 네 편의 시 검토에서 관찰된 김정환 번역의 양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갈이를 비롯하여 하나의 행 안에서의 어순, 구 걸치기 등을 비롯한 시의 외적 형태를 번역시에서 유지하고 있다. 둘째,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 등의 국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두점과 부호까지 번역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모음운, 자운 등의 운율적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넷째, 단어, 대명사 등을 생략 없이 모두 반영하며, 어휘의 결, 길이 등을 고려하여 원문 어휘의 효과 살리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을 통해 확인된 것은 영미시의 시적, 미학적 효과를 번역에 반영하기 위하여 번역자가 엄격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다. 또한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많은 영미시 번역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산문화, 즉 운문을 산문적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쓰는(정하연 2020: 254) 경향을 피하여 영미시의 국문 번역에서 운문화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김정환의 시도들이 모두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갈이 유지를 위해 영어의 통어적 어순을 그대로 한국어에 반영하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모두 떨어뜨리는 경우도 앞의 검토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어휘의 번역도 맥락을 제거하고 한 단어씩 대응어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자연애호가 한 명 죽다>에서 “형벌의 일광(punishing sun),” <그라우발레인>에서 “통풍구(vent),” “겸자 아기(forceps baby)” 등이 그 예이다. 이렇듯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는 방법론을 엄격하고 경직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 원시에서는 출발어의 자연스러운 통어적 구조와 흐름으로 읽히지만, 도착어로는 일부 매우 부자연스러운, 즉 결과적으로 원시의 효과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을 하게 되는 모순이 벌어진다.

세 편의 시 번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양상은, 도입부에서는 매우 선명하게 원시의 구조와 형상이 반영된 반면, 결말, 즉 마지막 연에 이르러서는 번역문의 구조가 불안정해짐과 동시에 원시의 행갈이를 재배열하고 개별 행의 구성도 흐트러지는 경향이다. 이는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전략을 배반하는 양상으로, 어떠한 효과를 노린 적극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텍스트 장악

력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보여 시의 내재적 의미를 읽어내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는 시가 갖는 형식미와 의미의 관계를 “시가 만드는 형상”이라고 표현하며 이 형상은 “감탄(delight)에서 시작하여 지혜(wisdom)로 끝나”는 형태를 취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Frost 1939: 139). 시의 결말에서 도달한 “지혜”를 외형적 구조와 연결하여 섬세하게 읽어내는 것이 번역자가 궁극적으로 수행해내야 할 작업일 것인데, 앞서 검토한 세 편의 마지막 연, 더 나아가 마지막 행의 외형적 울림 그리고 내재적 의미 모두 원시보다 크게 흐려진 점이 아쉽다. 한 명의 번역자가 소화하기에는 방대한 양의 작업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홀로 도맡아오기는 했으나, 깊은 그리고 섬세한 읽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적인 성취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한계가 아닐까 한다.

## 5. 결론: 시 번역이 요구하는 담대함 그리고 섬세함

본 연구는 김정환이라는 전방위 문인의 시 번역에 대한 열정 그리고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방대한 작업량에 비하여 평단과 학계에서 진지한 관심과 탐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에서 출발하였다. 작은 첫발을 내딛는 태도로 김정환의 역작 중 하나인 『세이머스 히니 전집』의 번역을 면밀하게 살펴 김정환의 번역관과 이를 실천하는 방법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히니의 초기 대표작 ‘Death of a Naturalist’의 세 편의 국문 번역을 발췌본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김정환 번역이 그 전략과 구현 방식에 있어서 다른 두 역자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차이는 번역에서 행갈이를 반영하는 방식 및 원시의 통어적 구조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 각기 다른 구조와 특징을 지닌 히니의 초기, 중기, 후기 시 한 편씩을 선정하여 앞서 확인된 김정환의 번역 전략 중심으로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원시의 구조적, 언어적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번역하는 김정환의 담대한 번역관이 확인됨과 함께, 이를 경직된 방식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도착어인 국문의 가독성 및 이해의 훼손을 감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김정환이 추구하는 외적 섬세함, 즉 시어, 운율, 행같이 등의 외적 형상의 섬세한 반영이 내적 형상을 읽어내는 섬세함까지 이어지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외적 형상의 운문화를 훼손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함이 김정환이 시 번역에서 펼쳐온 도전의 실패로 귀결하는 것은 아니며, 그의 담대한 번역 전략을 통해 영미시의 국문번역에서 적극적 운문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성취라고 사료된다. 그가 지속적으로 세상에 내놓고 있는 방대한 번역에 비하면 본 연구에서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미미한 분량으로,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김정환 번역에서 대한 검토와 비평 그리고 토론이 이어져 시 번역의 토양이 비옥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구태헌 (2009) 「번역비평의 한 실제: 애드거 앨런 포의 시 번역의 경우」, 『우리문학연구』 27: 157-178.
- 김나현 (2022) 「팔림세스트: 검은 고라니와 황색예수」, 『현대문학의 연구』 77: 339-371.
- 김슬기 (2014) 「김정환 시인 “꿈속에서 폴란드 시인과 만났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6436773>
- 김육동 (2010) 『근대의 세 번역가』, 서울: 소명출판.
- 김혜경, 윤소영 (2016) 「등가성과 충실성의 관점에서 본 시 번역 사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4): 25-54.
- 김효중 (2006) 「박용철의 블레이크 시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17(1): 67-85.
- 박수연 (2018) 「세계문학, 번역, 미메시스의 시 - 번역자로서의 김수영」, 『한국문학의 이론과 비평』 22(4): 103-128.
- 박영란 (2022) 「서정주의 시 번역의 비교분석: 시의 리듬 관점에서」, 『통번역교육연구』 20(1): 83-101.
- 성승은, 우동찬, 박건영 (2022) 「언어유희, 리듬, 그림의 만남: 셸 실버스타인의 *A Light in the Attic*의 번역」, 『번역학연구』 23(5): 147-181.

- 신상범 (2020) 「미학적 가치를 고려한 시 번역 연구 - 윤희주의 시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8(4): 211-231.
- 신상범 (2021) 「시적효과를 고려한 시 번역 연구 - 김소월의 시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9(2): 101-120.
- 심선향 (2021) 「『히스테리아』 영어 번역본의 감정 번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25(4): 125-147.
- 이재성 (2022) 「번역가능성과 미적 효과의 번역에 대한 연구: 윤희주 시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20(2): 121-142.
- 장경렬 (2013) 「즐거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 김정환 번역 셰익스피어 전집 3」, 『우리교육』 2013(봄): 236-239.
- 전세진 (2020) 「정지용 번역 연구(1): 정지용 초기 시 번역의 특징-정지용의 타고르와 블레이크 시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1(2): 159-202.
- 정민정 (2013) 「세계시인전집 번역 맡은 김정환씨 “전집, 시인의 작품세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2300143?sid=103>
- 정정호 (2018) 「번역 문학가 금아 피천득에 대한 시론」, 『세계문학비교연구』 33: 51-80.
- 정하연 (2020) 「시가 만드는 형상: 디킨슨 시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 『번역학연구』 21(3): 235-261.
- 정현 (2018) 「정지용의 윌트 휘트먼 시 번역 작업의 목적: 일제 강점기와 해방공간의 근본적 차이」, 『영미문화』 18(2): 79-104.
- 최재봉 (2013) 「“시 영터리 번역 너무 많아 직접 나섰죠”」,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571837.html>
- 한미애 (2020) 「한-영 시 번역에서 시제와 상: 신경림 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3): 263-284.
- 한미애, 조의연 (2020) 「한용운의 시 번역 분석: 인지적 직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1): 189-214.
- 한세정 (2020) 「시문학과의 아일랜드 시 번역의 특징과 의미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1(1): 295-331.

- 홍은택 (2014) 「번역시의 읽힘새를 위하여」, 『현대영미시연구』 20(1): 201-204.
- 황지우 (1988)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서울: 민음사.
- 황지우 (1999)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 Frost, Robert (1939) 'The Figure a Poem Makes', in Joyce Carol Oates (ed.) *Best American Essays of the Century*, Boston: Houghton Mifflin, 176-178.
- Hirsch, Edward (1999) *How to Read a Poem*, New York: Harcourt.
- Raffel, Burton (1988) *The Art of Translating Poetry*, University Park and London: The Pennsylvania State UP.
- Ryoo, Gi Taek (2016) 'Poetic Translation as Re/Writing: Kim Su-yeong's Translation of Robert Lowell's Poetry', *Comparative Literature* 70: 97-118.
- Underhill, James W. (2016) *Voice and Versification in Translating Poems*,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Vendler, Helen (1995) *The Breaking of Styl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P.
- Vendler, Helen (1998) *Seamus Heane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P.

<분석 텍스트>

- 셰이머스 히니 (1995) 『한 자연주의자의 죽음』, 권국성 역, 서울: 도서출판 한겨레.
- 셰이머스 히니 (1995) 『어느 자연주의자의 죽음』, 최유경 역, 서울: 시학사.
- 셰이머스 히니 (2011) 『셰이머스 히니 시전집』, 김정환 역, 서울: 문학동네.
- Heaney, Seamus (1998) *Opened Ground: Selected Poems 1966-1996*,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Abstract]

**Kim Jung-hwan'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Poetry Translation: As Observed in  
*The Collected Poems of Seamus Heaney***

Ha-yun Jung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poet and translator Kim Jung-hwan has translated a vast body of modern English poetry for over three decades, but due to the lack of critical discourse on poetry translation in Korea, his translations have rarely been reviewed or discussed by critics and scholars. This research offers a close examination of Kim's translation of *The Collected Poems of Seamus Heaney*, focusing on four poems from different stages in Heaney's poetic development, as categorized and structurally analyzed by Helen Vendler. The examination finds that Kim strictly adheres to his principle of translating every element as they are in pursuit of "comparative versification," James W. Underhill's concept of translating verse into verse, as opposed to paraphrasing, the more conventional approach in English-into-Korean poetry translation. Kim's strategy sometimes results in compromises in comprehensibility and syntactic flow, but despite these risks, his translations demonstrate new possibilities in comparative versification in translating English poetry into Korean.

Keywords: literary translation, poetry in translation, Seamus Heaney in translation, English into Korean translation, poetry translation criticism

주제어: 영미시 번역, 셰이머스 히니, 셰이머스 히니 국문 번역, 김정환 번역, 시 번역 비평, 번역가 연구

정하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junghayun@ewha.ac.kr

관심 분야: 문학번역, 영미시 번역, 번역의 미학적 지평, 소설 문체 번역

논문 투고: 2023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8월 3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